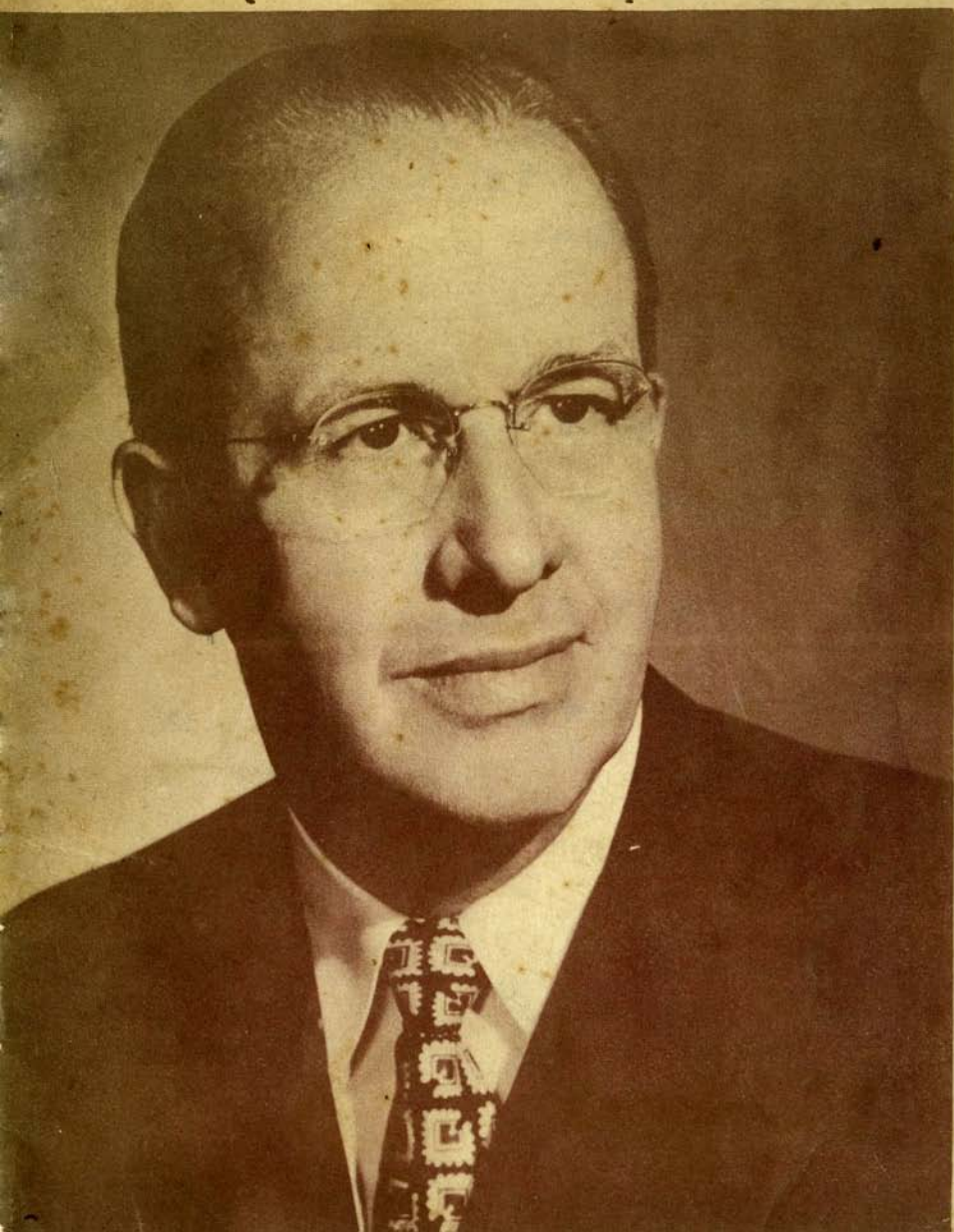


성도의 벗



5
165

목 차

예언자의 말씀	
교회의 관리 제도.....	1
당신의 질문	
불사불멸과 영생.....	3
마음의 안식을 찾아서	7
결혼 후의 일년	10
자녀 교육의 중심지인 가정	20
각 지부의 소식	
삼청지부 소식	30
청운지부 소식	31
65년도 4월 침례자 명단	32

예언자의 말씀

“ 教會의 管理制度 ”

대관장 데이브 오. 맥케이



우리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관리제도에 대해서 가끔 질문을 받습니다. 다음은 그것에 대한 한 대답입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제도를 주의깊게 분석해 보면 거기에는 강력한 중앙통치 형태를 갖는 모든 힘과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교회의 조직에는 신권의 권능이 있는데 그것은 "신권을 파는" 악덕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율법에 충실한 신권소유자는 누구나 회장단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교회의 조직에는 어떠한 것에도 구애되지 않는 교육제도 즉 안전하고 참된 민주주의의 중심이며 힘인 교육제도가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 교회의 조직에는 만민에게 고루 정의와 "동등의 특권"을 부여합니다.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적용되는 율법제도가 있습니다.

넷째로 우리 교회조직에서는 능률과 진보가 촉진되도록 교회에 관해 배치되어 있습니다. 능률과 진보가 촉진되는 것은 중앙 이외의 각 집단이 각각 그의 일에 전념하고 있으면서 회원에 있어서 유용하고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은 전부의 집단을 위해서 즉시 채용될 수 있도록 각자가 중앙관리 조직과 밀접하게 맺어져 있습니다.

사실 능률과 진보의 촉진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오늘날 세계의 모든 국민들이 갈구하고 있는 관리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24세의 청년, 더군다나 당시의 사회제도 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의 사회제도에 대해서도 "무학"이었던 24세의 청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와같은 관리제도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진실로 위대한 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 자신이 "그는 회복된 교회조직의 일을 미리 나타내도록 훈련을 받은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말하였는데 이것들이 이상의 사실에 대한 답인 것입니다.

—당신의 질문—

해답자: 12사도 정윤희 회장

조셉 필딩 스미스

불사 불멸과 영생

질문: 별, 달, 해의 영광에 들어간 사람은 모두 영생을 얻게 됩니까? 신권회반에서 어떤 이들은 받게 된다고 주장하나 나는 모든 계명을 준행하는 신실한자 만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사불멸의 은사를 받아 부활후 영원히 살게되나 영생인 해의 영광은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영생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불사 불멸을 얻은 자는 영원히 살게되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거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나는 보라 이것이 나의 사업이요 나의 영광이니 곧 인간의 불사 불멸과 영생을 있게 하는 것이니라 란 성구를 인용했습니다. 만일 불사 불멸과 영생이 동일한 것이라면 주께서 각각 다른 것으로 언급하시지 않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결론이 옳은지요.

해답: 경전에 정의된 불사불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모든 생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이다. 만인의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만일 한 사람이라도 부활하지 못한다면 죽음을 극복하신 구세주의 승리는 완전한 것이 아닐 것이다. 사망이 세상에 임한 것은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이며 아담의 후손에게 사망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는 세상에 사광

을 가져오게 한 범법이 속죄를 통해서 보상되고 모든 인간에게 생명이 주어져야 할 것을 요구한다. 이같이 원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불사불멸이라 부른다. 불사불멸과 영원히 산다는 어구는 동의어임은 사실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위대한 은사에 주석을 부치셨는데 이 은사는 모든 것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이며 불사불멸이라 칭하신 것이다. 이 주석을 매우 명확하게 해 주는 구절이 경전 안에 수없이 많이 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 회원에게 쓴 편지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생겼으니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생겼도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으니 이와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리라 그러나 각각 그 차례대로 부활할 터이니 먼저는 처음 익은 열매 되신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붙은 자요, 그 후에는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니 이것이 나중이니라 대개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고전 15장 21-26절)

불사 불멸에 대한 애무랙의 설명.

"영과 육체는 또다시 완전한 형태로 재결합하리니 수족이나 뼈의 관절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완전한 모양으로 회복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또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생각해 내면서 하나님 앞에 끌려 나와 서게 되리라 이 부활은 늙은 자나 젊은 자나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악인이나 의인이나를 막론하고 만민에게 이루어지

나니 머리털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몸의 모든 부분이다
지금 세상에 있는것 곧 육체에 있는것 같이 본래의 완전한 모양
으로 회복되어 영원하신 한 하나님이신 아들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의 심판대 앞에 끌려나와 심문 당하리니 사람들
의 행위의 성령의 심판대 앞에 끌려나와 심문 당하리니 사람들
의 행위의 선악에 따라 심판하시리라" (알마서 11장 43-44)

이상의 말씀은 불사불멸에 관한 말씀이다.

당신이 인용한 모세서 1장 39절은 매우 의미 깊은 말씀이
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인용된 불사불멸은 부활한 후의
다른 상태를 가르킨 것이다. 이 사실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게 주신 주님의 말씀으로도 확증된다.

이같이 나 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의 시련의 날을 정하여
주었나니 믿는 자는 누구든지 사망에서 영생에 이르는 불사불멸
로 일어 나게 되리라 또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저주로
일어나리니 이는 저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저들의 영적 타락
에서 구속함을 받을 수가 없음이니라(교리와 성약 29장 43-44)

영생은 하나님의 가장 크신 은사.

그러므로 영생은 불사불멸의 은사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가장 크신 은사이다. 그러기 때문에 영생을 축복으로 받은
자는 아버지의 왕국을 축복으로 받게 된다. 기록되기를.

저들은 예수에 대한 간증을 받고 저의 이름을 믿어 매장되
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침례를 받은 자니 예수의 이름으로
물속에 매장되는 것이니라. 이는 그가 주신 계명에 따라
행하는 것이다. 계명을 지킴으로써 씻김을 받아 저들의
모든 죄에서 깨끗이 되어 안수례를 베풀 수 있도록 성임되

고 인봉된 자의 안수례로써 성령을 받은 자니라.

또한 신앙으로 이겨내며 아버지께서 공정하고 진실한 모든 자에게 내려주시는 약속된 성령으로 인봉된 자니라.

저들은 장자의 교회회원들이니라.

저들은 아버지께서 만물을 주신 이의 손안에 있는 자들이니라.

저들은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영광을 이미 받은 제사와 왕들이며 멜기세덱의 반차 곧 예녹의 반차요 독생자의 반차를 좇은 가장 높으신이의 제사들이니라.

그러므로 기록된대로 저들은 신이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러므로 만물은 저들의 것이니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이나 미래 것이나 만물은 저들에게 속하여 있고 저들은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느니라.

또한 저들은 만물을 이길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76장 51-60절)

영생을 얻은 자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거하게 된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아버지의 왕국의 온전함을 받을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구세주께서 유대인을 꾸짖으실 때 영생과 불사불멸의 정의를 내려 주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자기속에 생명이 있으며 그와같이 아들에게 주사 그 속에도 생명이 있게 하시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러한 일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때가 이르러니 무덤속에 있는 사람이 다 그 소리를 듣고 나오되 착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받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받으리라(요한 5장 26-29절).

마음의 안식을 찾아서

이 영 법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도 가야하고, 돈도 많이 벌어야만 이것이 곧 성공이요 출세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의 참된 성공은 나 자신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데 있으리라고 오히려 나는 생각한다. 우리가 한국에서 살건 미국에서 살건 내 이웃과 내 하나님 앞에 진실로 거짓없이 깨끗이 살 때에 여기에 인간의 존엄성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정녕 하나님 앞에 진실로 깨끗이 살 수 있고 거짓없이 살 수 있을 그 때에 우리는 참으로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에게 찾아 오는 것이다. 이 복음의 세계에서는 실패도 성공을 가져오는 것이며 성공은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가져 오는 것입니다.

얼마전에 나보고 "한국에 있을 때는 미국을 바라보고 살았으나 온갖 고생을 다해 미국에 와 보니 별로 신비한 것이 없으니 이제는 무엇을 바라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어느 여인에게 나는 빙긋이 웃으면서 "하늘나라를 바라고 살면 한국에서 살아도 행복하고 미국에서 살아도 실망이 없는 것이겠지요"라고 말한 일이 있다.

나성은 한국 사람들의 수요가 가장 많은 곳 중의 하나이며 지난 여름철 내가 나성에 온 이후 많은 한국의 남녀학생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이주해온 정착민들도 만날 기회가 있었다. 이

사람들 가운데에 두 종류의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행복한 사람들이요 다른 하나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분이다.

허영을 떠나 바른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진실로 사랑하고 남편을 진실로 공경하며 형제를 우애하고 이웃을 내몸같이 생각하며 부지런히 일해가는 사람은 한국에서도 행복했고 이곳에서도 행복하다. 그러나 식모나 부려먹고 손에 물이나 튀기며 영화에서본 영화 배우들의 옷차림이나 화려한 가구만을 업상하는 여인들은 미국생활에서 별로 만족을 못느낀다. 왜냐하면 이것이 미국생활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솔직한 이야기로 미국사람들의 검소하고 실질적이고 부지런한 것은 한국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한다.

세상에는 포도를 먹으며 맛이 좋다고 하는 남자가 있는 반면에 왜 씨앗이 있는가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으며 아름다운 장미꽃을 보고 아름답고 향기롭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왜 가시가 있는가고 트집하는 여인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우리의 행복과 마음의 평안은 우리가 어디 사느냐 하는데서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인생을 아름답게 생각하고 즐길 수 있는 나의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이리라.

우리의 행복과 편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또 하나의 요소는 내 생의 이념과 내 삶의 목적인 것이다. 내뜻이 바르고 내 목적이 건실할 때에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으며 곤난한 가운데에도 내 마음 속에는 행복이 깃들 수 있으며 선한 싸움의 마지막에는 승리의 월계관을 쓸수 있는 것이다.

미국 땅에 처음 정착한 이주민들은 금을 캐러온 사람은 아

니였다. 황금을 바라고 온 사람들은 스페인 정부의 힘을 얻어 남미로 갔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치던 청교도들이 오늘날의 미국 사람들의 조상인 것이다. 삼백여년이 지난 오늘날 금을 찾으러 온 사람들의 후손들은 아직도 후진국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자유와 진리와 봉사"를 찾기 위하여 정든 고국을 떠난 사람들의 후손들은 아름다운 오늘의 미국을 건설케 하였다.

세상의 이익과 권리와 안락만을 찾는 사람에게는 불안과 초조와 권모와 술수가 따르며 자유와 진리와 봉사를 찾는 사람과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마음에 행복이 따른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하나의 영원한 진리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바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뜻을 먼저 구하라"하신 말씀도 그 뜻이 여기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한국의 성도들을 그리면서

1965년 3월

나성에서.

- * - * - * - * -

- 19페이지에서의 계속)

물론 이곳에서 우리가 언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개성의 조정문제가 많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토론한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결혼한 후 첫번 일년동안에 당면해야 할 것들이며, 그러한 것들은 현재 당신에게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결혼 후의 일년

하블리 엘. 테일러

제 1 부

유명한 어느 작가는 구애와 약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상적인 약혼은 구애의 탐색이 이루어졌을 때 도달된 이해이며, 즉 두 사람은 이념, 이상, 기호, 취미, 그리고 그들이 진실로 사랑하고 있다는 이성적인 감정이 충분히 일치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구애가 이러한 단계에 도달하면 초기의 불확실성과 난처했던 일들은 과거에 속하게 된다. 짐은 더 이상 벳이 정말로 축구 경기를 좋아하는지 또는 의사가 되려던 그의 뜻을 이루는 길을 가고 있는지는 걱정하지 않게 된다. 벳은 이제 짐이 얼마나 자기의 머리를 매력있게 보아 줄런지 또는 그들이 결혼을 하였을 때 용돈을 그에게 요구하기를 바랄 것인지를 더 이상 의문을 갖지 않는다. 또한 두 사람은 어떠한 마찰이나 오해를 빚어냄이 없이 그들이 자주적으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안일한 단계에 이르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한가지 사랑의 징조라고 볼 수 있는 동반자로서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근원이다. 그처럼 완전하게 일치하므로서 특별한 만족을 느끼게 된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그들에게 일치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유쾌한 일이다. 비록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반려자로서의 느낌은 대단히 만족한 것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헤어져 있는다면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게 된다. 한가지 명백하게 해 둘 수 있는 것은, 근본적인

이상이나 취미나 기호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감정에서 야기되는 만족은 그트쳐 질 수 없다는 것이다.

"반려자로서의 크나큰 만족을 깊이 느낀다면 또 하나의 뛰어난 사랑의 표적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보다 더 높은 생활수준으로 향상되려는 감각이다. 실제로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은 생활에 있어서 가장 뜻깊은 일들에 관한 깊은 생각과 많은 느낌에 젖어들게 된다. 애인, 아내, 남편, 어머니, 아버지, 아이, 그리고 가정이라는 말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가장 의의있는 관념으로 그들에게 생각되어지는 것이다. 순수한 사랑만이 깃들여져 있는 가정에서의 생활을 통한 체험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크고 사려깊으며 민감하고, 자기를 낮추며 더욱 고무적인 것에 젖어들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사람의 생각이 그러한 방법에 더욱 젖어 있을 때 생활은 자연적으로 향상되고 활기를 띄우게 된다. 더욱 훌륭한 일을 고무하는 애인은 전에 단점이라고 느낀 것을 더욱 인식하여 새로운 용기를 찾고 훌륭한 욕망을 인식하도록 강화시켜 준다.

"두 사람이 이러한 반려자로서의 성품을 시험하고 입증하며 그 향상력을 보여준다면, 그들은 합당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 그러한 결론에 이어 약혼이 뒤따를 수 있다"(토이 이. 디커슨 저, "약혼 시기")

결혼후의 일년동안은 위대한 조정의 기간임을 당신은 알 것이며 그것은 당신이 전에 체험한 것과는 다른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조정의 기간을 인식하지 못하고 조정하려는 뜻을 갖지 않는다면 당신의 결혼생활은 오해와 불평을 초래하기 쉬운 것이다.

각자가 이러한 신혼생활을 가장 이상적으로 요리하여,

혼한 반력자로서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관념을 지닌다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각자는 자기가 자라났고, 자기들에게 성공적인 결혼생활의 본보기를 보여준, 자기들의 가정생활에서 받은 체험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 차이나기 쉬운 일을 예상했다면 그리고 구애기간 동안에 이러한 것들을 토의했다면, 결혼후 일년 동안의 조정기간의 어려움은 것처럼 많은 문제를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당신들이 첫번 일년 동안에 해야할 중요한 조정 문제는, 여덟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 어느것이 가장 중요하냐고 말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되기에 나는 점제적인 조정 문제부터 시작해 보기로 한다.

결혼하는 시기까지 각자는 자기가 벌은 수입이 있으며 아마 부모나 다른 사람들이 마련해준 액수들 보충하게 될 것이다. 각자는 다소간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되며 남자나 여자나 자기들의 예산을 세우고 자기들의 특수한 소망에 따라 돈을 쓰는 관습을 갖고 있다. 결혼한 후에는 이것이 달라질 것이다. 이제 그것은 "내 돈"이 아니며 "우리의 돈"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혼생활에서 일어나는 불만에 관하여 기록된 바, 당신은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을 찾아보게 될 것이다. 즉 결혼한 부부가 재정적인 곤란을 해결할 합당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강조할 수 있는 바는 당신의 예산을 세우고 그것에 따라 생활하라는 것이다. 당신은 아마도 당신의 예산을 자주 변경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를 당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생활하고 있는 시대나 환경이 변화하여 당신의 취미가 변화하여 소망이 변화하고 친구가 달라지며 당신의 예산에서 성과를 걸우었던 모든 것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의

돈을 여러가지로 지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당신의 예산에 일치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하라:

(1) 일정한 금액을 매월 봉급날 저축금으로 떼어두라. 이 금액은 10원이든 100원이든 또는 1000원이든 이것을 계속하여 실천하라.

(2) 또 다른 얼마의 액수를 비상금으로 떼어두라.

(3) 남편이나 아내가 똑같이 수당을 받는 일이 없으므로 이러한 수당을 서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관하여 설명할 필요가 없음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해 되어야 할 것은 수당으로 충당되어야 할 일들이 때로는 있다는 점이다.

(4) 모든 계획으로 부터 완전한 십일조를 바치는 계획에 이르기 까지 예산을 세우라. 하늘 아버지께서는 지상에 있어서 그의 사업을 돕기 위해 이처럼 재정적인 문제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 가정을 축복할 것이다.

지나친 소비와 월부 구입의 위험성을 경고해 보자. 젊은 이들이 결혼하였을 때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장만하려 하며 아내는 가정을 위해 가구나 기구나 자동차나 의복을 원할것임은 당연한 일이다. 오늘날 많은 물건들이 현금없이도 구입할 수 있다. 이것은 새로 결혼한 사람들에게 있는 커다란 유혹이다. 그 결과로서 젊은이들이 자기의 지불 능력 이상으로 부채를 짊어진다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것은 불행과 불만을 초래하며, 젊은 부부간에는 종종 월부금 지불 문제들 둘러싸고 많은 오해를 이트켜 준다. 그러므로 내가 강력히 주장하는 바는 당신의 지불 능력의 수준에 따라 월부 구입을 시작하라는 것이다. 만약 필요하다면, 중고품 가구를 구

입하여 세를 얻은 검소한 방에 가정을 설계하는데 만족하라. 당신의 부담을 과증하게 하지 않는 자동차를 가지라.

가능하다면 당신 자신의 소유인 가옥을 마련하도록 계획하라. 우선 이것은 검소한 가정이 되도록 하라. 이제 겨우 새살림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은 대개 50만원 내지 60만원의 가옥을 구입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모든 돈 문제는 가능한한 자동적으로 취급하므로서 결코 논쟁을 벌이지 않도록 하라. 자신들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는 것보다 더 빨리 결혼생활의 행복을 파괴하는 것은 없다. 돈문제는, 다른 문제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서로 정직해야 한다. 내가 항상 느끼는 바는, 당신이 조그마한 적금이라도 지속하고 있어서 예기치 못했던 일이 생겼을 때 그것으로 지출한다면 얼마나 유익한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적금을 사용하기 전에, 그 돈이 어떠한 목적으로 쓰여져야 하는가를 토론하고 동의를 서로 얻어야 함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인간의 생활에서 돈이 그처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생활 방도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 점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든지 관계하지 말고 당신은 항상 현실주의적이 되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점을 지성적으로, 온당하게, 하나의 관념 즉, 당신은 당신의 취미에 관계없이 과잉지출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생활한다면 당신은 그러한 문제들이 야기되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문제의 차이를 해결하고, 비록 당신이 세운 목표의 달성이 여러해가 걸린다고 할지라도 당신이 세운 목표들을 실험시킬 수 있을 것이다.

어느 고등학교의 가정 경제학 교사는 자기 학교 여학생들을 데리고, 취미에 맞게 장식하고 훌륭하게 꾸며놓은 어느 훌륭한 새 가정을 방문한 일에 관하여 이야기한 바가 있다. 여학생중에 한 학생이 집주인에게 인사를 하였을 때 그집 여주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다. "부랭크 부인, 저도 이제 결혼한다면 이와같은 집을 갖고자 해요" 부랭크 부인은 빙그레 웃으며 그 여학생의 손을 꼭쥐고는 이렇게 말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허지만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30년 이상이나 걸렸어요"

이제 그럼 개성의 조정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 해보자. 당신은 결혼하기 전에 당신의 버릇이나 당신의 특수한 생각을 각자 가지고 있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더욱 훌륭히 되게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일반적인 사회와 종교와 당신이 살고있는 환경의 경제 사정에 따르게 되는한 별로 커다란 차이를 이트켜 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몇가지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행복을 더욱 이룩해 주는 가장 유의한 것이 될것이다. 이 중에 몇가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1. 음식의 선택.
2. 음식의 준비.
3. 식사 시간.
4. 식사 장소
5. 여러가지 식사를 제공할 음식의 종류
6. 구입할 의복의 종류
7. 의복에 관한 관심.

당신은 가끔 라디오나 텔레비를 듣거나 볼 때 푸토그램 선

택에 있어서 의견의 차이를 발견할 것이다. 남편이 자기가 원하는 책이나 잡지만 구입하고자 주장하는 것이 훌륭한 일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여기에는 타협이 필요하며 그렇게 하므로서 두 사람이 다같이 만족하여야 한다.

또한 가정에서의 언어 생활에 관한 의견 차이도 있을 것이며 빈번한 손님 접대에도 그러할 것이다. 또한 잠자리에서의 독서나 음악을 듣는 일에 관한 의견의 차이도 있을 것이다. 또한 각자의 우편물을 공개하는 것에 관한 문제도 제기 되었을 것이다. 개인적인 전 화의 대화내용에 관하여 알려 주어야 하는 것은 가족간에 흔히 있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결혼한 사람들의 생활에 있어서 개인적인 생활이란 중요하다므로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옛날의 사랑 문제들 이야기 하는 것은 매우 그릇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중요한 것은 남자는 자기의 아내에게 자기 어머니의 훌륭한 요리솜씨를 계속해서 상기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재치있게 그리고 사랑으로 처리하며 결코 감정을 상하게 할 필요가 없다면, 이러한 문제를 취급하는 데는 여러가지 길이 있다. 당신들은 서로 상대방 개인의 소유물 즉, 여러가지 종류의 소유물들을 존중해야 함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당신들 중에 한사람이나 또는 두 사람이, 어느 한 사람에게 속하거나 또는 모든 사람에게 속하여 특별한 비밀을 갖고 있지 않은 보통가정의 출신일 것이다. 만약 두사람이 동의한다면 이러한 관념에 반대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러나 반려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러한 일을 관용하지 못하는 가정의 출신일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견의 차이는 다른 문제들 처럼 토의 되어야 하며 그러한 방법으로 타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렇

게 하므로써 각자의 흥미와 활동은 서로 상대방의 희생을 초래하지 않고 완전히 발전시킬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육체적인 조정에 관하여 이야기해볼까? 두 사람이 것처럼 함께 생활하므로 여러가지 섬세한 육체적인 조정이 필요시 된다. 모든 관심은 당신의 몸을 살피는데 기울여져야 한다. 개인의 정결은 절대 필요하다. 당신은 건조열이나 이상과민과 같은 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종할 필요가 있다. 멘스의 시기는 역시 두 사람이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당신의 성생활에 관한 의문은 가장 섬세하게 그리고 이해를 가지고 취급되어야 할 문제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경험인 것처럼 생각되었다. 나의 판단으로는 그것은 이것 이상의 것이다. 만약 합당하게 이해된다면, 그것은 신혼부부들에게 더욱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영적인 체험이 될 수 있다. 이와같은 육체적인 조정에 관한 특수한 책임에 합당한 이해와, 의도 접근하는 것은, 결혼 생활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이것은 가장 높은 명령이며, 사랑과 이해를 창조하고, 다른 아무도 이룩해 줄 수 없는 형태의 감정을 이트켜 줄 것이다. 반면에, 반대적인 것이 참될 수 있으며 흔히 있는 일이다. 그 결과로 만약 이혼하지 않는다면 많은 불행과 불신과, 때로는 육체적이며 감정적인 병고를 가져다 준다. 당신의 성생활에 속하는 당신의 모든 육체적인 관계에 당신은 하늘 아버지의 자녀이며 당신은 지상에 있는 생물체 중에 가장 높은 엔다우먼트 안에 당신이 있으며, 그러므로 당신은 이 관계를 달콤하며 거룩하게 지켜야 할을 기억한다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결코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전락 시키지 말라.

이제 당신의 감정적인 조정에 속하는 몇가지 중요한 문제로 화제를 돌려보기로 하자. 여자가 결혼한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가끔 자기의 어머니 하고 지내기를 몹시 열망하고 있음은 남자가 기억해 두어야 할 일이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신의 새 아내는 가정의 건설자로서 자기의 책임을 매우 민감하게 느낀다. 그러므로 자기 남편에게 흥미가 없고 단지 자기 어머니에게만 이해될 일들에 관하여 매우 오랜 시간 이야기 하는 것은 여자에게 커다란 만족을 준다. 아내는 이야기만 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어머니에게 가정을 내어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아내로서의 자기 책임을 계승하고 있는가를 더욱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비슷하게 남자도 자기의 옛패거리들과 하루저녁을 보내기를 원할 것이다. 어찌하여 그가 결혼하기 전에 친했던 친구들과 함께 가끔 나가지 않는지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러나 한편, 만약 그것이 자기 아내만을 자주 집에 남겨두게 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삼가해야 할 일인 것이다. 남편과 아내사이의 훌륭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남편이 주일동안 여러날 밤을 자기의 옛 친구들과 보내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며, 여자는 흥미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좌절 되었었다. 여자가 임신한 기간동안 남자는 여자가 자기와 함께 집에 있어 주기를 바란다면 자기 아내를 더 이상 혼자 집에 있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

역시 여자는 가끔 자기 남편이 바라는 종류의 가정을 이룩할 수 없음을 두려워 한다. 이것은 여자의 커다란 관심을 이트켜 준다. 남자는 자기의 아내와 가족을 위하여 아내도 좋아하고 물론 자기도 좋아 한다고 생각하는 규모로 부양할 수 없음을 걱

정한다. 그는 역시 자기의 아내가 지니고 있게 해주고 싶은 모든 것을 자기의 아내에게 줄 수 없음을 두려워한다. 자기의 아내가 상점에서 가장 좋은 의복을 갖고 공예사가 만들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가구와, 건축가들이 건축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가정을 갖지 않기를 좋아하는 아내를 진실로 사랑하는 남자는 없다. 극히 적은 수의 젊은이가 그러한 것을 준비할 수 있다. 그러나 결혼한 후에, 어떠한 남자든 여자든 바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 이해, 그리고 존경이다. 만약 그들이 이러한 것들을 지닌다면, 돈, 가정, 자동차, 가구, 그리고 모든 다른 것들은 그다지 중요치 않게 될 것이다.

서로의 의견과 관념을 존중하기를 나는 주장하는 바이다. 한 사람이 전적으로 옳고 한 사람은 전적으로 그릇되다는 일 있을 수 없다. 어떠한 것이든 주장하지 말고 서로 들어주라. 어느편이 옳고 어느편이 그른가를 평가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서로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기회를 가져야 함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흔히 있는 일이지만 — 어떤 결정이 내려져야 하였을 때나, 행한 일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생겼을 때, 남자가 그 일에 대한 자기의 느낌을 나타내고 며칠을 기다렸다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관찰해 보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생각이다. 흔히 자기의 의견을 상대방의 의견에 굽힘으로서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나는 당신들에게 주장하는바, 질시하는 기분이나 성미나 고함이나 감정을 근절하는 길을 찾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개인의 높은 영적인 생활을 부식시키며 불만이나 오해를 자아내는 것이다. 이기주의는 가정생활의 커다란 파괴자이다.

(9페이지에 계속)

"자녀 교육의 중심처인 가정"

벨라 에스. 스페포드 회자

"1964년 9월 30일 상호부조회 년례대회에서
행한 연설)

"시대의 지혜"란 말은 엄격한 시간의 경험이 어떤 말은
참되고 또 어떤 행위는 험명하고 분별있고 사려깊으며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뜻을 암시할 때 흔히 쓰이는 귀절이다.
세계 역사상 예수를 제외하고는 고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솔로
몬 왕만큼 그 지혜로서 널리 알려진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기쁘운에서 밤에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통치
자로서 다윗왕을 계승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
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할 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르
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
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들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
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열왕기 상 3장
5절, 9-12절)

남을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의 중요함과 솔

토몬 왕의 이 현명한 말은 시대의 지혜의 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솔토몬의 지혜로운 말 가운데 오늘날 교회의 어머니들이 숙고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래의 것이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언 22: 6)

현대의 사회생활은 복잡하며 사회 악이 논의되고 있다. 어머니들은 때때로 성숙한 어른들의 슬기를 아이들이 가지도록 양육할 수 있을지 어떤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한다.

우리들 앞에는 소년 소녀의 길을 방해하는 악과 유혹의 어지럽고 놀랄만한 기사와 보고서가 제시된다.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과멸의 거미줄에 얽혀 있다.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건데 의료책과 문제들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회문제 해결의 기술에 중점을 둔 사회적 연구와 사회복지 계획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그의 효책은 대부분 사회복지 기관에 의해서 관할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한 아이가 길가에 버려졌을 때의 대책 방법으로서는 가치 있을지 모토나 가정에서 현명하고 슬기로운 부모에 의한 조기교육을 통한 예방책보다 더 나은 처리방법은 아니다.

우리의 어린이들에게 주는 우리의 가르침과 가정의 품격은 청소년의 행위와 성격 및 나아가서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 성장하는 어린이들의 생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교회지도자들은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때때로 우리는 권위자로 인정되고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반응을 듣는다. 8월 19일자 데저렛 뉴스 지상에 저명한 범죄학자인 하바드 해학 법대의 엘리노의 굴루크 박사가 제일차 국제 정신병 학자회의에 제출한 논문이 실려있었다. 어린이가 소년범죄자가 되고 나중에

는 성인 범칙자가 되는데는 어머니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박사는 말한다. 어린아이에게 미치는 어머니의 영향을 결정짓는 삼대요소는 어머니가 주입시킬 수 있는 감독, 훈육의 정도와 어머니가 밀바침하는 가족끼리의 결합력이라고 언급했다.

교회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의 보다 넓은 견해와 보다 큰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을 때 솔토몬이 의미한 것을 우리에게 이해시켜 준다.

"마땅히 행할 길"은 명확히 제시되었다. 교회는 더 나아가 매일의 가정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인도할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조언을 우리에게 주고 있으며 뛰어난 신권 정원회와 그 보조기구로서 우리를 뒷바침해주고 있다.

한편 불행한 환경이나 사려없는 부모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이들은 인생의 함정을 피할때 필요한 확고하고도 현명한 방향을 잡는데 실패할런지 모른다. 나는 믿건데 우리 교회는 많은 유능하고 성공적인 어머니들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젊은이들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우리의 신임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때때로 건전한 부모의 가르침에서 벗어났던 사람들이 부모의 그 가르침 때문에 뒤에 회개의 생활로 되돌아온다. 극히 최근에 이제는 84세가 된, 그 부모들에게 주의깊게 양육되었던 사람이 그의 감동적인 회개의 전말을 내게 얘기했다. "나의 반항적인 청년시기에 나의 부모의 가르침은 나를 견제하고 어느 한도까지 불들어매는 것이 되었다. 나는 그 가르침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고 결국은 그것이 나를 올바른 생활과 평화로 돌아오게 했다"

타락한 한 사람에게 대해서 많이 얘기하면서 옳은 길을 걷는 수많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것은 인간의 상정인 것 같다.

빅케이 대관장은 이에 대해서 언급하고 동시에 교회의 젊은이들에 대한 신임을 아래와 같이 표시했다.

인간의 삶의 흐름속에 있는 비극에 열심이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죄에의 몰입과 영적 부패의 여율과 갱벌을 피하며 굳건이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무관심하지 말자 그들의 고상한 삶은 자라나는 세대의 신임을 확고히하고 증장시킨다.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울안에 있는 "아흔아홉 마리"를 우리는 감사히 생각해(모성 — 신의 반려자)

나는 얼마전 일단의 민간및 사회복지 운동에 적극적인 비 물론 여성들의 오찬회에 참석했던 일을 기억한다.

청소년들의 반 사회적 행위의 증가에 대한 깊은 우려가 표시되었다. 개선방법으로는 미국가정의 강화의 필요성이 전체적으로 합의된 의견이었다.

옆 자리에 앉은 한 부인이 내게 두가지의 질문을 했다.

(1) "당신의 교회 청년들 간에는 소년 범죄가 있습니까 있다면 국가적인 통계에 비교한 어떤 종류의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2) "또한 당신들은 엄격한 예의 범절에 대한 훈육과 극히 높은 수준의 가정생활의 규범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당신들의 젊은이들을 견제하는데 어느 정도나 효과적입니까?"

나는 그 부인에게 제시할 통계적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소년범죄가 없다고 정직하게 말할 수는 없었지

만 우리의 규범이나 가르침은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을 느꼈다. 나는 그 규범과 가르침이 떳떳하고 법대로 생활하는 남녀라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음을 느낀다고 주저없이 말했다.

나는 현재 선교사업에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1,1000명 이상의 젊은이들을 생각했다. 또 과거 오래동안 이와 같이 봉사한 수 많은 사람들을 생각했다. 상호함상회 대회를 위해 테버나클에 모여들던 수천의 청년 남녀들—이 훌륭한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에 그 값어치로 해서 인도자가 되도록 선택받은—을 눈으로 보았던 인상적인 광경이 머리에 떠올랐다. 나는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으로 일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생각했으며 최근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 되도록 그의 예언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그의 가정교육의 훌륭함을 내가 익히 알고 있는 한 젊은이를 나는 생각했다. 이와 비슷한 가르침을 받고 이와 비슷한 부름을 받아서 이 지상의 여러 국가들 안에서 의를 위한 힘이 되어있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했다. 나는 상호부조회를 주관하고 있는 신앙과 간증이 두터운 지성적인 수많은 부인들을 생각했다. 어느 대학내에 있는 지부 상호부조회를 방문했던 것은 흐뭇하고 인상적인 경험이었다.

또한 나는 동부의 대도시에서 열두살 짜리 보이 스카우트와 나누었던 회화를 생각했다. 그는 얼마전 돌아가신 의롭고 아름다운 어머니에게 주의길게 양육되었었다. 그 소년은 보이 스카우트 주말 야외훈련에 참석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가 사회적인 인정과 특권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국가적인 중요인사가 순시하는 단체에 선발되었다고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 국가적인 중요인사는 말했다. "한 단체

에 이렇게도 많은 훌륭한 소년들이 어떻게 모였을까?" 그 소년은 그가 확실히 알고 있는 대답을 내게 말해주었다. "우리는 모두 몰몬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의 결과가 외관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가정에서 의로운 부모들에 의하여 아이들이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마태가 기록한 "그의 열매로 그들을 말리라"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규범과 훈육이 가장 잘 측정되는 곳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하나님과 또 말일의 예언자가 계시를 통해 말씀하셨고 우리가 노력하고 선용하도록 기록된 경전의 주요 골자라고 내가 간주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아이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도록 단단히 교육시키는 것이다. 이의 간단한 예를 들어 보면 아래와 같다. 교리와 성약 68장 25-28에 기록된 하나님의 훈계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근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읽을 필요는 없다고 느낀다. 이것을 잘 모르는 분에게는 좋은 읽을거리로서 그것을 권하고 싶다.

말일성도들은 결혼은 신성한 제도이며 신전 결혼은 영원한 가정을 이룩하는 튼튼한 기초라고 항상 가르침을 받아왔다. 예언자 조셉 스미스는 선언했다. "결혼은 천국의 제도이며 예덴 동산에서 세워진 것이다. 고로 그것은 필요한 것이고 구원의 신권의 권능으로서 엄숙하게 집행되어야 한다"(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1912년판, 103페이지)

맥케이 대관장은 이렇게 설설이 간청했다.

땅위의 모든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들의 손에 결혼이란 형식의 가능성을 쥐고 있으며 그 결혼은 어떤 곳에서 얻는 무엇

보다도 더 그들의 천세의 행복과 내세의 영원한 유대와 행복에 공헌한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모성 - 신의 동반자, 119페이지)

제이 튜벤 크라크 부관장은 아래와 같이 우리에게 가족의 기본적인 그리고 영원한 관계에 대해서 상기시켜 준다.

크게 말해서 가족이란 내가 알고있는 어떤 원리보다도 회복된 복음의 원리와 계획에 근본이 되는 것이다. 지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영의 영원한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 와 어머니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영들은 이 지상에 와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죽어야 할 육신을 받도록 창조되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는 다시 육신을 받고 영혼과 육신과 정신이 재결합한 완전한 것이 된다.... 가족없이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운명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 관계란 근본적인 것이다(상동 10-11페이지)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아이들을 기르는데 있어서의 우리의 의무를 설명했다.

아이들이 침례를 받는 이유를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다. 그리하면 그들은 침례받은 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희망으로 감동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면전으로 돌아갈 것이다(상동 148페이지)

훈육은 그리스도의 복음안에 구체화되었다. 그것은 아이를 잘 기르는데 근본적인 것이긴 하지만 현명하게 실천 되어야 한다.

부리감 영은 일찍 아이를 다스리는 현명한 원칙을 말일성도들에게 가르쳤다. "당신의 아이들을 사랑으로 길러라"고 그

는 말했다. "...그들의 기질과 성격을 연구하여 그에게 따라서 그들을 다루어라. 절대로 당신들의 기미대로 그들을 고치려고 열을 올리지 말라"(상동 23페이지)

울슨 프렛 장노는 이 충고를 부연해서 말했는데 이것은 불행하게도 어떤 경우에는 아직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화를 내어서 아이들을 고치려 하지 말라. 여러분들의 훈계와 꾸지람을 조심스럽게 조용히 표하되 열성과 결단성을 동시에 보이라.눈에 보이는 사소한 실책을 모두 잘못으로 생각지 말라. 이것은 여러분들 가족의 용기를 꺾게 되고 그들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주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얼마후에는 그들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주던 말던 무관심하게 된다.....여러분들을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돌릴만큼 가족 관리를 엄격히 하지 말라.(상동 29페이지)

하롤드 비. 리 장노는 영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영적 접촉의 유지, 가족 기도의 실행, 교회 의무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 이것들은 모두 우리 말일성도 가정을 성공케 하는 것이다"(상동 159페이지)

교회는 언제나 배움의 중요성을 가르쳐 왔고 개척시대부터 학교가 설립되었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교육을 받도록 격려하라고 권장되어 왔었다. 오늘날의 경쟁적인 세계에서 이것은 특히 중요한 것 같다.

존 테일러 대관장은 우리의 아이들을 교육하고 지식과 배움의 기회를 주는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우리는 무지한 자손을 원치 않고....지혜롭고 현명하며 문

예적, 과학적 학식과 선하고 칭찬받을만하고 지성적이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손을 원한다....

(상동 26페이지)

개인의 자유가 여러모로 위협받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는 귀를 기우릴만한 가치가 있는 말이다. 맥케이 대관장은 이 신성한 원칙을 가르치고 가정의 책임에 희망을 건다.

맥케이 대관장은 말한다.

가정은 인간의 사회 및 정치생활의 가장 높은 이상 즉 다른 사람의 권리와 특권을 침해하지 않고 완전한 행동의 자유 를 가르치는 최량의 장소이다(상동 6페이지)

많은 우리의 지도자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동일한 충고를 주었다. 하워드 헌터 장노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좋은 보기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가장 큰 가르침은 실패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이것은 아버이의 가장 큰 도전이다(상동 51페이지)

말일성도들은 흔히 자신을 특이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상하다는 뜻이 아니라 특별하다는 뜻을 지닌 것이다. 리차드 엘 에반즈 장노는 말했다.

특이하다는 말은 우리의 뜻으로서가 아니라 경전의 뜻으로 보아 특이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말로서 하나님이 미래에 가지시고, 신, 구약에 지적된 순결, 영광의 안에서 특이한 세대들을 나타내는 것이다(상동 45페이지)

그러므로 다른 일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이루고

아이를 기르는데 있어서도 우리는 특이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가정과 여인의 역할의 관점이나 표준이 재태의 것에서 법화할 시대에 있어서도 우리는 교회의 가르침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새롭고 자극적이라고 하는 현대적, 진보적인 것을 추종하지는 않는다. 현대에서는 우리의 아이들을 덕과 진리의 길에 매어주려면 영속적인 경계가 필요하다는 말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수 많은 우리의 소년 소녀들이 증명하고 있듯이 교회의 가르침을 고수하는 말일성도의 일반적인 공적이라는 사실에 기쁨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우리의 상호부조회 어머니들에게 말한다. 나는 대부분이 많은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젊은 어머니들에게 특히 감사한다. 그들의 용기, 진리에 대한 그들의 사랑, 조업을 따르고 알려는 그들의 희망, 그들의 충실한 교회 출석은 다음 세대들 잘 대변하고 있다. 그들이 아이들을 곁에 데려다 놓고 상호 부조회에서 여성으로 해야 할 길을 배우고 있는 어머니들을 보는 것은 하나의 영광이다.

아이들이 나이들었을 때 그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떠나지 않도록 교육할 수 있는 지혜와 지혜로운 마음으로서 우리의 어머니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번덕스럽고 근심많은 현대에서 아이들을 기르려는 그들의 두려움을 교회의 가르침에 굳게 따르므로 오는 마음의 평화로서 대신하기를 나는 진실하게 기도한다.

삼청지부 소식

성황을 이룬 가든 파티.

지난 5월 12일 수요일 서울 각 지부의 성인들만 초청하여 삼청지부 정원에서 열린 가든 파티는 예상외로 대성황을 이루어 초여름 밤의 세시간 반을 호화롭게 수놓았다. 상호부조회 자매님들의 요리 솜씨가 극히 돋아 "비빔밥"을 저녁으로 음미하고 난 후 색등과 색종이로 장식된 정원에서 활동 프로그램을 가졌는데, "게스트 코너"를 비롯하여, 인기를 모은 댄스장노와 유키카 장노의 한복 차림의 늙은 부부분장, 삼청지부 각 조직별로 출연하여 재능을 보여준 "삼청골 장날", 각 지부 대항 재능 겨루기, 그리고 이색적이었던 "대목 놀이", 여기서 "춤놀이", "돼지꿈 풀이" "풍선 터트리기", 영화 상연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뿐만 아니라 행운권 추첨으로 결정된 이날의 "킹과 퀸"은 상호 부조회 자매님들이 준비한 왕관과 의상을 입고 기념품을 받으므로 더욱 박수갈채를 받았다. 정말 형제와 자매로서의 사랑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어 보지 못했던 아쉬움을 이번에 다소나마 풀어본 듯 하였다. 그래서 삼청지부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엄중행사로 하여 더욱 훌륭한 자리를 마련해 보겠다고 다짐하며 수고해 주신 여러분과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삼청지부 지부장단에서는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는 바라고.

결승전에 진출한 농구.

지난 5월 15일 오후 3시부터 청운 중학교 농구 코트에

청운 지부 소식

최초의 반별 화이어 사이드회.

청운지부에서는 지난 5월 첫주일 화이어 사이드회 모임을 상향회의 각반 별로 가졌다. 각반별 화이어 사이드회는 청운지부가 한국 선교부에서 맨처음 갖는 것으로서 봉사와 이삭줍기 받은 남자 청년 상향회 회장인 이정현 형제가 말아 올드 미스터와 올드 미스의 결혼관을 교환했으며 특히 어머니날을 마지하여 회원들의 가정의 모습을 토의했으며 어머니와 아버지로서의 심정을 이야기 하는등 가정 중심의 문제를 다루었다. 기수월계 반에서는 여자 청년 상향회 회장인 홍명자 자매의 사회로 반 회원 각자의 취미에 대해서 토의하여 정말 즐거운 화이어 사이드 회를 가졌다.

지부 대항 농구 대회 삼청에 석패.

지난 15일 3시에 청운 중학교에서 개최된 농구대회에서 청운지부 학생팀은 모든 점으로 우세한 삼청지부 성인팀과 대항전반전에서 14: 4로 리드 당하였으나 후반전에서 제대토의 기술을 발휘하여 타임 아웃 3초전 까지에 28: 28의 동점으로 만회하였으나 2초전에 삼청지부의 후리스 투샤 중 한점이 끝인 되서 분패하고 말았다.

- * - * - * -

-30 페이지 삼청지부 소식에서의 계속-

서 열린 지방부 주최 지부 대항 농구 경기 도나멘트에서 삼청지부는 그간 우승 후보지부로 주목되던 강적 청운지부를 단연 누르므로서 무난히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었다. 지부의 명예를 걸어지고 감투 정신을 발휘하여 페어 플레이를 보여준 선수들은 성동지부와 대결하게 될 결승전을 대비하여 맹연습 중인바, 자신있는 패기로 우승을 나관 하며 더욱 분발하기를.....

4월 침례자 명단

성동지부: 안 현 철, 최 윤 직, 김 영 란
유 종 수, 유 장 진, 우 정 남

서부지부: 장 희 주, 장 미 자, 정 지 현
김 형, 김 정 희, 권 영 옥
박 승 평,

대구지부: 지 성 호, 김 한 배, 이 동 희
이 희 창, 민 대 기, 성 옥 연

부산동구: 정 자 현

삼척지부: 김 주 화

청운지부: 이 명 화

(표 지 설 명)

12사도 정월회 회원

에스라 티. 벤슨

末日聖徒 예수 그리스도 教會

韓國宣敎部

(住 所 錄)

宣敎本部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淸雲支部	73-3995
三清支部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5번지
	72-3596
城東支部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락동 산 12의 24번지
西部支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58의 1
	73-1208
大邱中央支部	대구시 삼덕동 2가 24번지
	2-6659
釜山支部	부산시 동대신동 3가 95번지
	2-1371
東區支部	부산시 동구 수정동 658의 10

'65

성도의 벗

發行人 개 일 이 · 카

編輯人 具 重 植

發行所 서울特別市鍾路區淸雲洞 7

印刷所 末日聖徒 예수 그리스도 教會 韓國宣敎本部